

# 賃借農業의 空間構造\*

徐 贊 基\*\*

## The Spatial Structure of Renter Farming

Chan-Ki Suh\*\*

**요약 :** 이 연구는 1970년과 1990년의 시군별 농업센서스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임차 농업 공간 변이의 성격과 공간구조의 특성 및 임차농업 공간분화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임차농업의 공간구조는 帶狀구조에서 圈域구조로, 生態空間에서 經濟空間으로, 封建的 小作空間에서 小農의 借地空間으로 이행중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차농업공간의 자본주의적 분화과정은 산업화된 즉 신고전경제학적 논리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나 아직도 한국 임차공간의 분화 질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논리는 없다.

**主要語 :** 賃借農業, 小作空間, 小農의 借地空間, 資本制의 借地空間.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variations and structure and the logic of spatial differentiation of the renter farming in Korea. The renter farming has transformed its spatial structure from zonal to Thünen's rings-like patter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nter farming has been changed from the ecological and the tenantable to the economical and the commercial. Although there is no single logic full explanation the order of such spatial differentiations, the logic of industrialization or neo-classical economics seems to be most effective.

**Key Words:** renter farming, tenant farming space, peasant renter farming space, capitalist renter farming space.

### 1. 서 론

#### 1) 연구 목적

한국 농업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小作慣行은 농지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으나 실제로는 1960년대 말까지 小作地主制의 형태로 他耕이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근대적 의미의 타경 즉 賃借농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차농가와 임차지의 비율이 1970년에 각기 33.5%와 17.2%였으나 1990년에는 각기 42.8%와 30.5%<sup>1)</sup>에 이르게 되었다.

임차농업화는 단순히 타경의 형태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업농업화와 더불어, 한국농업이 전통적 생계농업에서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상징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이 때문에 현재 임차농업은 한국 농업의 성격 규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것은 農地流動에 있어서 賃貸借가 미치는 영향이 1975년 이전에는 30% 미만이었었는데 대하여 1975년 이후에는 무려 60% 이상에 이르고(李貞煥 외, 1984, p.69) 규모 확대 농가의 80% 이상이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李東鎬 외, 1990, pp.1-22)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임차농업의 증가와 발전은 당연히 임차농업의 空間變異(spatial variation)와 공간구조의 재편을 수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이것은 다시 농업구조의 성격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아직도 초보단계에 있긴 하나 근래에 와서 임차농업이 지니는 농업 내외적 문제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임차농업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임차농업

\* 이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구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 것은 임차농의 올바른 성격규명에 문제가 되고 있다.<sup>2)</sup> 그것은 한국의 임차농업이란 그 속에 다양한 성격이 담긴 하나의 (공간)체계이므로 임차농업의 지역성이나 공간성을 무시한 연구는 일면적 성격규명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적 시야에서 임차농업의 공간변이를 알아 보고 이런 공간변이를 일으킨 기본틀로서의 공간구조의 특색과 그 형성요인을 명백히 하며 나아가 이들 空間分化를 질서지우는 논리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2)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1970년과 1990년의 시군별 농업 센서스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다. 농업 센서스는 주요 시기별로 시군별 임차농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또 1970년과 1990년을 대상 시기로 택한 것은 전자가 국민경제는 물론 한국 농업의 전환기에 해당되고 후자는 자본주의 농업화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들 두 시기의 센서스에서 공통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임차 농가율, 임차농가의 형태, 임차농가의 소유지와 임차지의 규모, 임차지의 종류 등 공통지표 외에 1990년에만 수록된 非農家 임차지 규모 등 총 6종의 분석지표를 지도화하여 그 공간분포와 공간구조를 파악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의 공간구조란 분포도상에 나타난 공간 배열관계를 형태적 측면에서 模式化한 것을 의미한다.

또 공간분포와 공간구조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율과 농가수의 변동, 고령 인구율, 겸업 농가율과 그 변동, 농가의 경지 소유규모 등 예상 요인을 지도화하고 각종 농업지리 관련 분포도와 지세도 등을 이용하여 전술한 6종의 분석대상 분포도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포도 분석 외에 경북의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한 예비조사에 의해서 요인 분석이 보완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궁극 목적은 한국 임차농업공간의 보편적 공간질서 발견에 두어졌으므로, 개개 지역의 특수성이나 우연성(contingency)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시적 접근에 주력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농가계층의 구조분석에

의한 공간분화의 논리 발견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맑시즘의 兩極分解論과 産業化論(신교전 경제학적 접근)의 공간 설명도를 검증하였으며 小農理論의 의의는 이들 두 논리의 검증 결과가 자연적으로 시사할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고찰은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 2 임차농의 정의와 연구 동향

### 1) 임차농의 정의

임차농업 연구에서 처음 부딪치는 문제는 임차농<sup>3)</sup>의 정의 문제로서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견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임차농을 일제시대의 小作農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李佐宰, 1974, 朴玄採, 1977, 金炳台, 1977)와 金榮鎮류의 견해가 그것이다. 김영진은 “소작농이 전근대적이며 전통적인 신분상의 예속관계와 불평등 계약하에서 지주의 농토를 차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하여, 임차농은 근대적 자유평등 원칙하에서 대등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회적으로는 신분상의 예속성 없이,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地代論에 입각한 적정률의 대가를 지급하고 남의 농지를 차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金榮鎮, 1982, pp.67-69).

위 두 견해에서 소작이나 임차농이 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 짓는 他耕이란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전자가 전근대적 隸農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근대적 借地農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임차농은 分益農(sharecropper)이나 雇只農이 영위하는 농업과는 다르다. 그러나 근대적 차지농이라해도 한국의 경우 小農的 借地農이 탁월한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借地營農會社와 같은 전형적인 資本制的 借地農(capitalist agricultural renter)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봉건제와 자본제의 과도기적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1, p.103).

차지농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개념정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령 봉건시대나 일제시대에는 소작농의 개념과 유사하고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제적 차지농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前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한국의 경우 아직도 임차농의 정의가 애매하고 단지 他耕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자본주의화가 상당히 진척된 금일에 있어서는 임차농을 소작농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자본제적 차지농에 더 무게를 두어 小農的 借地農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한국에 있어서 차지농의 연구 동향

### (1) 개관

한국에 있어서 전근대적 小作慣行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근대적 임차농은 1950년의 농지개혁 이후 출현하였다. 이 때문에 1960년대 전반까지도 타경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潘性紈(1958)과 농협중앙회(1964)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공백상태에 있었다. 그 후 1960년대 후반부터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농지 임대차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관념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농업도 구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임차화가 점차로 주목을 받게되자 朴基赫 외(1971), 李佑宰(1974), 金炳台(1977), 朴玄採(1977) 등에 의한 임차농 연구가 나오게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農地流動化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임차농업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吳浩成(1981), 金榮鎭 외(1982), 倉持和雄(1983), 金聖昊 외(1984), 李貞煥 외(1984), 金沅根(1985), 김성호 외(1986), 金正鎬(1987), 車洪均(1987)의 연구가 그 예이다.

한편 임차농 연구는 1986년 농지 임대차관리법이 제정되고 1991년에 동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더욱 활기를 띄우게 되었다. 이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 이정환 외(1990), 강창용(1991, '93), 김정호(1992, '93), 김정호 외(1993), 정기환(1993), 농어촌진흥공사(1993), 이정환(1994), 金正夫 외(1995), 강창용 외(1995), 이정환 외(1995) 등의 주목할 만한 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 (2) 임차농 연구의 접근방법과 성과

한국의 소작농이나 임차농의 성립과 확대에 관한 성격 규정은 연구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을 접근방법의 측면에

서 정리하면 대체로 3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다. 당시증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관점,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 및 소농경제학적 관점이 그것이다.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소작연구는 계급갈등의 관점에서 농민층의 프롤레타리아화 과정 즉 下降分解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탁월하였다. 이것은 小農의 몰락을 농업의 자본제화로 보는 견해이다. 즉 자작농이 궁핍화의 진행에 따라 자작 농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보충수단으로 농지의 임차를 확대해 나가다가 궁극적으로는 농업노동자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것으로서 임차농의 발생과 증가를 궁핍화의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倉持和雄(1983, pp. 111-115), 황한식 외(박현채 외, 1984, pp.67-127), 이영기(박현채 외, 1988, pp.134-137), 서울대 사회과학연구회(1988, pp.134-137), 李佑宰(변형운 외, 1991, pp.210-213) 등의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970년대 이후의 임차농업을 産業化에 따른 노동력 부족, 高地價, 거래비용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임차농업을, 자본을 고정자산으로서의 농지 매입에 투입하지 않고, 그것의 임차에 투자하는 자본주의 기업경영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농가의 노동력, 자본력, 경영능력 등의 생산요소가 농지보다 우월할 때 농지 임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는 견해이다(정기환, 1993, p.16). 吳浩成(1981, pp.38-68), 김성호(1984, pp.140-158), 金正鎬 외(1983, p.43), 강창용(1991, pp.61-73), 강창용 외(1995, pp.71-76)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끝으로 1970년 이전의 임차농 설명에 부분적으로 小農經濟學의 논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도 일부 인정된다. 이것은 임차농을 농가 생계비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소농의 대응전략의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즉 경영주의 生涯週期에 따라 가구원수의 변동이 있고 이것이 가계비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농가의 가구원수가 많아지면서 경영규모(임차규모)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다가 자녀의 분가가 진행되면서 경영규모를 축소해간다는 Chayanov의 소농이론(1925)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Chayanov의 이

론은 원래 러시아의 상황 즉 인구가 희소한 국가를 염두에 두고 도출된 것이므로 필요한 농지를 임의로 임차할 수 없는 인구조밀한 국가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Shanin, 1973, p.159). 이 때문에 소농이론을 명시적으로 한국의 임차농업 설명의 기본틀로 삼은 연구는 없다. 다만 경영주의 생애 싸이클 요인을 제시한 金沅根(1985, pp.54-57)과 정기환(1993, p.73 및 138)의 연구와 半실업상태에 있는 가족노동력의 기회비용이 적은 영세·소농의 경쟁력을 강조한 이정환·김은순의 연구(1984, pp.13-17)에서 제한적으로 적용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 와서 임차농의 증가와 농가의 규모확대의 주요인이 수요자 측면보다 공급자 측면에 있음을 감안할 때 소농경제학적 접근의 가능성도 검토해 볼만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정기환은 임차농의 증가를 장기적 사회변동의 측면에서 농업과 비농업부문간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정기환, 1993, p.138). 또 車洪均은 임차농의 증가요인에 대하여 농지개혁 불철저설, 농지법 부재설, 고지가설, 수익설의 4가지로 정리하고 전2자는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후2자는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과 관련이 크다고 하였다. 그 중 농지개혁 불철저설은 농지개혁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 농지법 부재설은 196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 고지가설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임차농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호, 1983, p.14).

소농사회에 있어서 他耕은 역사적으로 소작제 → 임차제 → 차지제(자본제적)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金聖昊 외, 1989, p.1081) 한국의 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격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金炳台 등의 “농지개혁법의 위력이 약해질수록 지주의 봉건적 성격이 농후해져 갈 것은 틀림없고 현재도 이것은 인정되고 있다.”(김병태 외, 1975, pp.145-146)라는 봉건적 성격 규정에서 시작하여, 朴玄採의 “再生小作제도의 경제제도적 규정에 대하여 반봉건적 성격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박현채, 1977, p.141)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봉건적 성격 규정을 거쳐, 황한식(박현채 외 1984, pp.67-127),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1991, p.103), 변형운 외(1991, pp.181-182) 등이 한

국의 소작제도를, 순수 소작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봉건제가 아니고 지주가 지대수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자본제도 아니며 소경영양식에 의한 소생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으로서의 小農의 借地制로 규정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金聖昊 등은 1967년 이전을 高地價단계의 小作地主制 부활기로, 1967-1974년을 低地價단계에서의 소작지주제 쇠퇴기로, 1974년 이후를 고지가단계의 資産的 地主制로 규정하고 이 자산적 지주제와 결부시켜 임차농의 대폭 증가현상을 설명하고 있다(李貞煥, 1989, pp.1109-1112). 이에 대하여 金沅根은 임대차제를 종래의 소작제 부활로 보는 견해와 새로운 현실 사태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라는 지금까지의 학계의 두 가지 견해는 自借作農의 경영경제적 양면성의 한 면만을 주장한 데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小作制 復活論은 자차작농의 영세계층을 대변한 것이고 현실적 필요론은 대농계층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다(金沅根, 1985, pp.58-59). 그러나 이런 논쟁과 관계없이 한국의 농업은 1970년대부터 자본제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가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독점자본주의가 지가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임차면적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성호 외, 1984, pp.153-158).

이상과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임차농 연구는 그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범위와 수준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증적,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한국의 임차농업에 관한 이론 정립이 미숙하다. 임차농의 공간성 연구의 열여가 그 중의 한 요인이다.

### 3. 賃借農家의 空間變異와 空間構造

#### 1) 임차농의 공간변이

##### (1) 1970년의 경우

1970년의 전국 평균 임차농가율은 33.5%에 이르나 지역간의 임차농가율의 차이는 비교적 커서 變動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가 0.28에 이른다. 또

표 1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임차농가율이 60% 이상을 점하는 고도 임차농업지역은 1970년까지는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까지 한국의 임차농업공간의 발달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차농가율 50-60%의 저도 임차농업은 비록 전국적으로 그 점유공간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강원도의 중북부를 중심으로 뚜렷이 형성되어 있다. 강원도에서의 임차농업의 집중현상은 자작이 탁월한 한국 농업공간상에서의 임차농업의 局地化 즉 국지적 임차농업공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차농업공간 발달의 초기적 특성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지역 형성에 국지적 요인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임차농가율에 의한 지역 유형

| 지역 유형     | 임차농가율(%) |
|-----------|----------|
| 고도 임차농업지역 | 60 -     |
| 저도 임차농업지역 | 50 - 60  |
| 저도 자작농업지역 | 40 - 50  |
| 고도 자작농업지역 | - 40     |

저도 임차농업지역은 한국의 농업공간에서 대표적인 산간 전작지대로서 답작지대나 혼작지대보다 일반적으로 토지 생산성이 낮고 농가당 농업 생산력도 가장 낮은 지역이다. 1970년 당시만 해도 임차농업은 주로 영세농의 생계방편과 관련되어 낙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970년의 임차공간은 봉건적 小作空間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차농업공간이 窮乏農業空間으로서의 북동부 산간 전작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賃借地 수요측면의 요인 외에도 賃貸地의 공급측면에서도 집중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강원도의 임차농가율이 높은 것은 강원도에는 국공유지가 많아서 국공유지 임차율(26%)이 전국 평균(1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 1970년의 임차농가율의 공간변이는 대체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이행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유형으로 본 공간구조를 모식화하면 저도 임차농업지역, 그 양측면의 저도 자작농업지역, 또 그 남서방의 고도 자작농업지역이 대상으로 배열되고 있는 구조 즉 對角的 帶狀構造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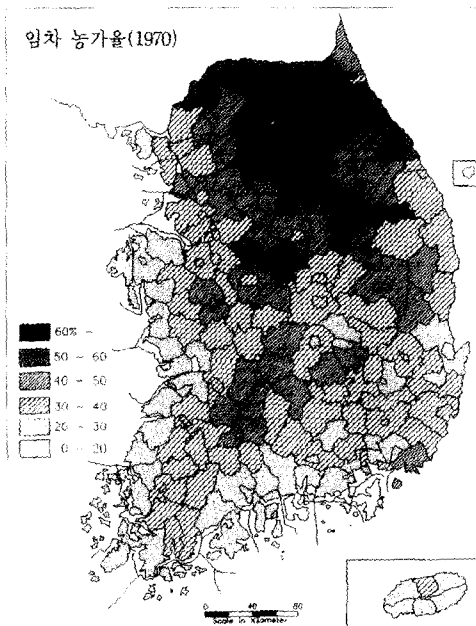


그림 1. 임차 농가율(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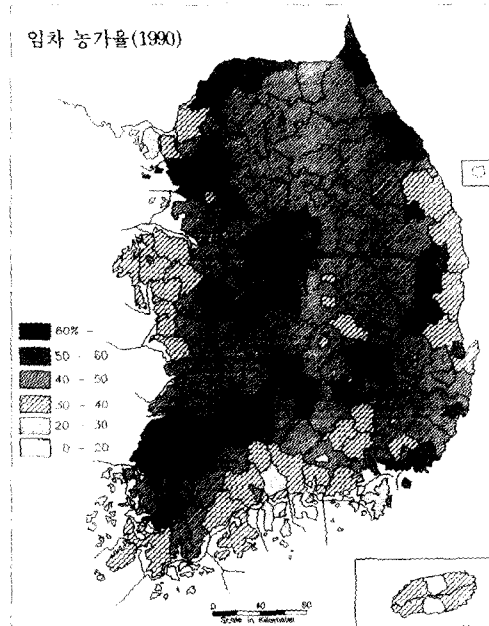


그림 2. 임차 농가율(1990)

루고 있다. 이러한 대각적 대상구조는 한국 전통 농업의 공간질서이다(徐賢基, 1975a, pp.40-42).

또 답작이 탁월한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 및 제주도에는 임차농업의 발달이 가장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가 조밀한 이 지역이 당시만 해도 이농이 활발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지의 공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또 도시지역의 임차농 발달이 매우 낮은 것 역시 이 시기까지는 자본제적 차지농의 발달이 미숙함을 시사한다.

요는 1970년 임차농업의 생계방편적 성격은 임차농업의 공간분포에도 영향을 미쳐 窮乏農業空間에의 임차농 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또 이러한 임차농의 국지성은 당시 생산력을 직접 규제하는 자연환경의 지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에서 임차공간을 한국의 전통농업공간이 지니는 기본 성격으로서의 生態空間(서찬기, 1975a, p.42)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1990년의 경우

1990년의 임차농가구의 공간분포는 그림 2에서와 같이 1970년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즉 평균 임차농가구가 1970년의 33.5%에서 42.8%로 증가하여 임차(농업)공간화가 전반적으로 크게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변이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됨으로써 임차농가구의 공간변이도가 비교적 근소(C.V=0.21)한 것이 특색이다.

임차농가구의 상향적 평준화는 임차(농업)공간이 1970년처럼 국지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또는 보편적 요인에 의하여 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1975년 이후 산업화에 따른 지가의 앙등, 부채지주의 농지증가, 대농과 노령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영농의 기계화 등이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임차농가의 증가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임차농업공간을 포함하는 전반적 한국 농업공간의 성격이 그 이전처럼 농업 내부적 변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외적 요인, 즉 자본주의 국민경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임차농업의 지속적 발달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서울과 그 인접지대에 임차농가구가 60% 이상의 고도 임차농업지역을 형성하였고 또 그 주변의 일부 지역에도 저도 임차농업지

역이 분포하여 전국에서 가장 임차농업화가 진척된 수도권 임차농업지역을 발달시켰다. 이것은 대도시 근교지역이 평야지대나 중간지대 및 산간지대에 비하여 현실지가와 收益地價 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金正夫, 1989, pp.56-57), 지가의 상승이 기대되고 부근에 노동시장이 전개된 지역이므로 지주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형식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호, 1992, p.34).

이러한 수도권 임차농업지역의 형성은 최초의 도시근교형 임차농업지역의 발달이란 점에서 자본주의적 임차공간화의 상징이다.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이들 도시의 근교에도 소규모의 도시근교형 임차농업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저도 임차농업지역 중, 일부 대도시 근교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충북, 전남북의 경계지역, 태백산맥의 일부 지역, 휴전선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비록 1970년의 경우와는 달리 분산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생산력이 낮은 원경 산간지역이라는 점에서 1970년의 저도 임차지역과 유사하다. 실제로 이들 원경산간 임차농업지역의 상당부분은 농지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매각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영세 고령농가가 50% 이상으로 많은 지역(김정호, 1992, p.34)인 동시에 이농민 소유의 농지 임차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전술한 수도권 임차농업지역을 비롯한 도시근교형 지역이 자본주의적 임차농업공간을 대표하는데 대하여 이들 원경 산간지역은 前 자본주의적 임차농업공간의 잔존이다.

만일 이들 원경산간 임차농업지역을 예외로 하면, 1990년의 임차농업의 공간구조는 서울을 핵으로 하여 주변으로 향함에 따라 고도 임차농업지역, 저도 임차농업지역, 저도 자작농업지역, 고도 자작농업지역의 순으로 임차농가구가 점감하는 圈구조로 모식화할 수 있다. 이것은 1970년의 대각선 대상구조와는 달리 경제적 농업공간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圈구조의 형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달이 미숙하고 지세 등 자연환경의 무질서한 공간배치가 규칙적인 권역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 외에도 경제논리에 민감하지 못한 소농이 영농주체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0년의 경우 자작 농업공간이 면적상으로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임차공간의 상당부분

도 전통적 임차공간이라는 점, 또 자본제적 차지농의 성격이 강한 도시근교형 임차농 공간이 이제 겨우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1990년은, 1970년에 비하여 임차농업공간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小作空間과 資本制的 借地空間의 중간 단계에 있는 小農의 借地空間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농가형태로 본 임차농업지역의 유형

(1) 농가형태와 空間分化 過程

임차농가는, 농가의 소유농지 규모에 대한 임차농지의 규모에 따라, 自借作農, 借自作農, 純賃借農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sup>5)</sup>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은 이들 3종의 임차농가가 공존하고 있으나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그 구성비에 차이가 있어 임차공간의 지역성, 특히 자본주의적 농업발달에 따른 공간분화단계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자차작 농가를 A, 차차작 농가를 B, 순임차 농가를 C로 표시할 때 단위 지역별로 구성비율이 가장 큰 형태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농가형태의 구성관계를 나타내면 이론적으로 ABC형, ACB형, BAC형, BCA형, CAB형, CBA형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A → B → C로 이행할수록 자가 소유경지의 비율이 점감하고 따라서 경영이 그 만큼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맑시즘의 下降分解 논리에 따라 임차농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화를 지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차농의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는 ABC → ACB → BAC → BCA → CAB → CBA형의 6단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가설화 할 수 있다. 따라서 ABC형은 자본주의적 임차농 발달의 초기 단계의 유형인데 대하여 CBA형은 성숙단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것을 농업 일반에 확대 적용할 경우 농업의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는 A → AB → ABC → ACB → BAC → BCA → CAB → CBA → CB → C → D(농업노동자)의 11 단계가 된다.

(2) 1970년의 지역유형

표 2에서와 같이 1970년의 지역유형은 총 6종에

표 2. 임차농업지역의 유형

| 지역유형 | 1970년  |       | 1990년  |       |
|------|--------|-------|--------|-------|
|      | 면적(헥타) | 비율(%) | 면적(헥타) | 비율(%) |
| ABC  | 53     | 30.8  | 123    | 58.9  |
| ACB  | 72     | 41.9  | 19     | 9.1   |
| BAC  | .      | .     | 5      | 2.4   |
| BCA  | .      | .     | 2      | 0.9   |
| CAB  | 45     | 26.1  | 39     | 18.7  |
| CBA  | 2      | 1.2   | 21     | 10.0  |
| 계    | 172    | 100.0 | 209    | 100.0 |

서 4종만 인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 ACB형이 가장 많고 이어 ABC형과 CAB형이 중요한데 이들 3종의 유형을 합치면 총 단위 지역수의 99%를 점할 정도로 유형구성이 단순한 것은 물론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공간분포도 단조하여 유형분화나 공간분화가 다같이 단순 명료한 것이 특색이다.

① ACB형 지역

ACB형은 단위지역의 수나 점유공간의 규모로 보아 1970년의 임차농업을 대표하는 유형이다. 일부 산재된 지역을 예외로 하면 이 지역은 3각형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대부분 평야지대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임차농업은 그 유형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자차작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어 임차농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ABC형보다는 임차농화가 진척되었다. 특히 동남부의 ABC형 지역보다 순임차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탁월한 것은 이 지역이 한국의 농업공간에서 대표적인 미작지대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② ABC형 지역

이 유형은 주로 목포 - 울진선 이남의 동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임차농화의 가장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유형이어서 안정도가 가장 높은 농가 계층구조를 나타낸다.

이 지역은 영남 米麥형 답작지대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전남의 미맥형 답작지대 일부가 부가되어 있어 작물 구성상으로는 당시 한국 농업공간의 표준지역이다(徐贊基, 1978, p.78).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세농가가 많아 순임차농가의 성립기반인 임

대지 공급 여력이 적은 지역이다.

③ CAB형 지역

이 유형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산간지대

영동지방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과 여기에 접속된 경기도의 연천, 포천, 가평군과 경북의 봉화군이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의 상당부분은 전술한 저도 임차농업지역에 해당되어 1970년 현재 전국에서 임차농화가 가장 진척된 지역이다. 전통적인 산간 전작지대로서 낮은 생산력으로 인하여 영세·소농의 하강분해가 촉진된 결과 농지 없는 순임차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제주군과 울릉도의 경우도 여기에 준한다.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의 종말기에 나타나는 궁핍임차공간의 대표적 예이다.

(나) 근교지역

서울과 그 남서부 일원, 대전·연기·청주·천안지역, 부산·마산지역, 대구, 광주 및 기타 12개 중소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전 2개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익지가를 상회하는 실제지가와 소유자의 지가 상

승에 대한 기대심리 및 상업적 영농을 하는 임차농의 높은 수익 기대심리 등이 복합되어 순임차농이 탁월하다. 순임차농이 탁월한 점에서는 전술한 산간지대와 공통이나, 후자가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의 종말기에 해당하는 궁핍임차공간인데 대하여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본제적 차지농의 성격이 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3) 1990년의 지역유형

표 2에서와 같이 1990년의 유형 구성은 1970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즉 4종의 유형만이 존재하는 1970년도에 비하여 1990년은 6종의 유형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ABC형)이 전체의 60%를 점하여 탁월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 그림 3에서와 같이 1970년의 경우 ACB, ABC, CAB의 3유형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비교적 균형을 취하고 있는데 대하여 1990년은 다양성 중의 통일성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CAB와 CBA형을 포함하는 도시근교형을 제외한 일반 임차공간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간이 그림 4에서와 같이 ABC형으로 통일되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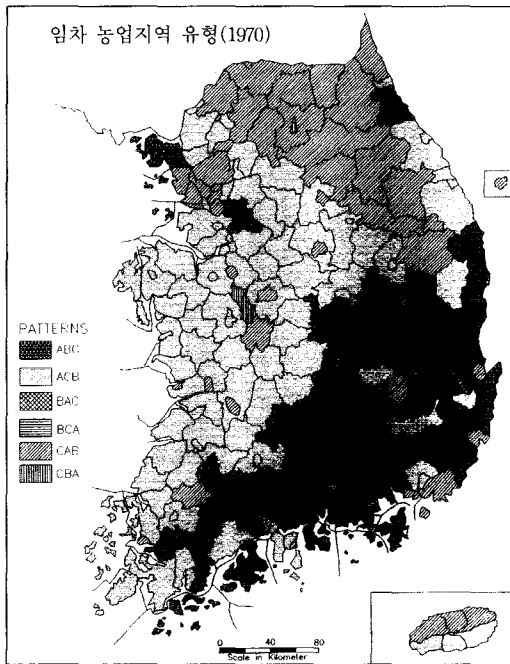


그림 3. 임차 농업지역 유형(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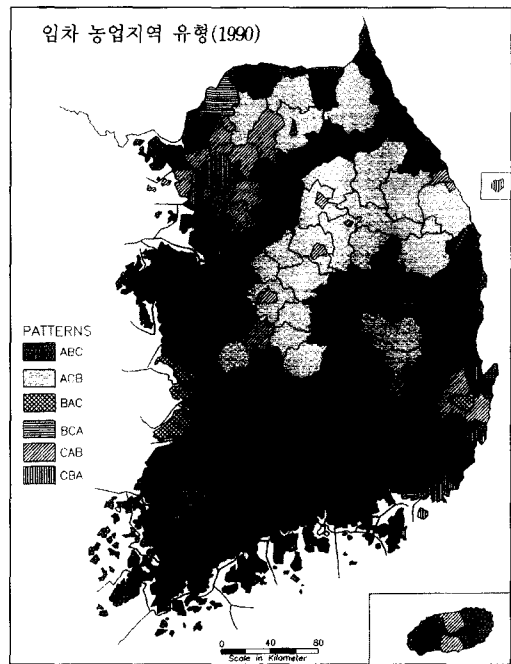


그림 4. 임차 농업지역 유형(1990)



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1990년이 1970년에 비하여 자본주의화가 크게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의 ACB형이 1990년에는 ABC형으로, (강원도의) CAB형이 ACB형으로 전환되는 것 등 임차농의 공간분화과정이 전술한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 과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간분화 과정의 可逆性은 전술한 임차농의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과정에 관한 가설이 한국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러한 임차농 공간분화과정의 가역현상은 산업화론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ABC형 임차공간의 확대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이나 농가의 지속적 감소 특히 순임차농가와 영세농가의 우선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이러한 이농 결과로서의 임대농지의 공급증가 외에도 도시자본의 농촌침투에 의한 부채지주의 증가 역시 ACB공간이 ABC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서부 평야지대의 ACB공간의 대부분이 ABC공간화 된 데 대하여 충북의 ACB공간은 1970년 이후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평야 답작지대와 산간 전작 또는 점이 혼작지대간의 산업화에 대한 空間反應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다. 산업화에 대한 공간반응은 1970년에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형성된 CAB지역이 1990년에는 상당 부분이 ACB형으로 바뀌고 일부지역은 ABC형으로 전환되어 궁핍임차공간이 1990년에 와서는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 임차공간의 또하나의 특색은 도시근교형 임차공간의 발전이다. 1970년에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 형성된 소규모의 CAB형지역이 1990년에는 전국 (시부)도시의 대부분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서울과 그 위성도시의 일부, 부산, 울산, 포항, 창원, 춘천, 태백, 전주, 대천 등은 최고도의 임차농화 단계인 CBA형을 시현하고 있어 도시근교형 임차공간의 발전이 매우 현저하다. 그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형성된 임차공간은 대표적인 도시근교형 임차농업지역으로서 한국에서는 자본제적 차지공간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장차 한국의 임차공간은 수도권의 도시근교형 임차농업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에 따른 통일적 圈域空間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간질서를 교란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지형이다.

1990년 임차공간의 마지막 특색은 1970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B계열의 지역 즉 BAC와 BCA형지역의 등장이다. 전자가 서천, 옥구, 부안군과 경주 및 점촌시에, 후자는 진해시와 영천군에 각기 분포한다. 이들 B계열지역은 비록 점유공간 상으로는 큰 의의가 없으나 A계열과 C계열의 중간 유형으로서 임차공간의 발전체계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 일반 임차공간에 있어서 임차지역유형으로 본 공간분화과정의 가역현상과 도시근교형 임차공간의 확대발전은 한국의 임차공간 설명에 있어서 산업화론 즉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의 높은 적합성을 암시하고 있다.

#### 4. 賃借地의 空間變異와 空間構造

##### 1) 임차지의 규모

###### (1) 1970년의 경우

1970년의 임차농가당 평균 임차지 면적은 0.5ha로서 영세한데, 1967년에 농가수가 최고수준에 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임차지 규모의 영세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임차지 규모의 공간변이도(C.V=0.28)는 비교적 커서 지역차는 현저하다. 임차지 규모는 절대적으로는 영세하나 지역차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상대적으로 대·중·소규모로 구분하면 표5와 같다.

그림 5에서 상대적 임차지 규모로 본 공간구조는 크게 3지대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대별 공간배치가 보기 드물게 명료한 것이 특색이다. 대체로 0.7ha 이상의 대규모 임차지역은 강

표 3. 임차지 규모에 의한 지역유형

| 지역 유형    | 임차농가율(%)  |
|----------|-----------|
| 대규모 임차지역 | 0.7 -     |
| 중규모 임차지역 | 0.5 - 0.7 |
| 소규모 임차지역 | - 0.5     |

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연결된 경기도 일부지역으로서 단괴형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산만 - 영일만 이남지역은 0.5ha 미만의 소규모 임차지역이 집중분포하고 이들 대·소규모의 임차지역 중간지대에는 0.5-0.7ha의 중규모 임차지역이 개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배치를 모식화하면 북서 - 남동방향의 대상구조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대상구조는 전통 한국농업의 대표적 지역 배치형이다.

한편, 임차농지 규모로 본 3 지대구조는 농가의 경지소유로 본 공간구조와 유사하다. 즉 대규모 임차지역은 0.5ha 이하의 경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의 비율이 20% 이하의 지역과 일치하고, 소규모 임차지역은 영세농가율 30% 이상지역과, 중규모 임차지역은 영세농가율 20-30%의 지역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경지소유 규모가 영세한 지역일수록 임차지 규모도 영세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70년의 임차지 규모 결정요인은 임대지 공급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1990년의 경우

1990년 임차농가당 평균 임차지 면적은 0.69ha로

서 1970년의 1.4배에 이른다. 이것은 산업화의 진척에 의한 이농과 탈농 및 농가의 노령화 외에도 상업적 농업의 발달과 영농의 기계화의 결과다. 즉 임대지의 공급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영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임차지 규모의 확대방향으로 그 공간변이도(C.V=0.22)는 1970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임차지 규모의 상향적 평준화 성향을 의미한다.

한편 1990년의 공간구조는 1970년의 그것처럼 단순명료하지가 않다. 그것은 자급농업이 탁월하였던 1970년의 경우 그 공간구조가 주로 임차농가수나 자연환경 등의 단순한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었는데 대하여 1990년의 경우 이들 요인 외에도 산업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요인이 보다 복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의 경우도 거시적으로 보면, 그림 6에서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중부와 동해안 지방을 예외로 할 때, 대체로 아산만 - 영일만 선 이북은 대규모 임차농업이 탁월하고 그 이남에서는, 서해안과 그 인접지역 및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규모 임차지역에 해당되며 소규모 임차지역은 전남과 경남의 소백산맥 지대 및 남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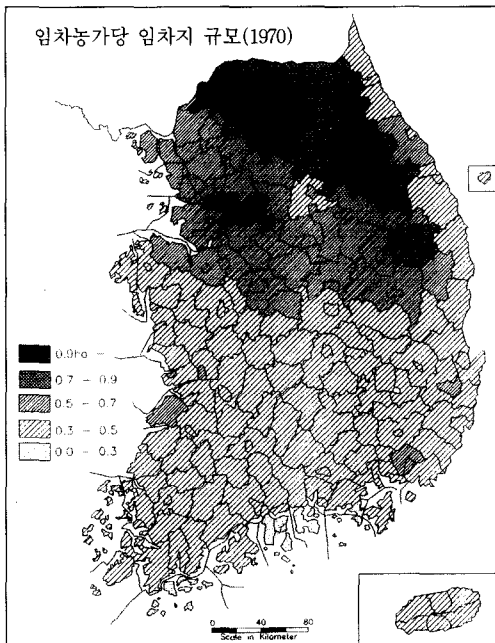


그림 5. 임차농가당 임차지 규모(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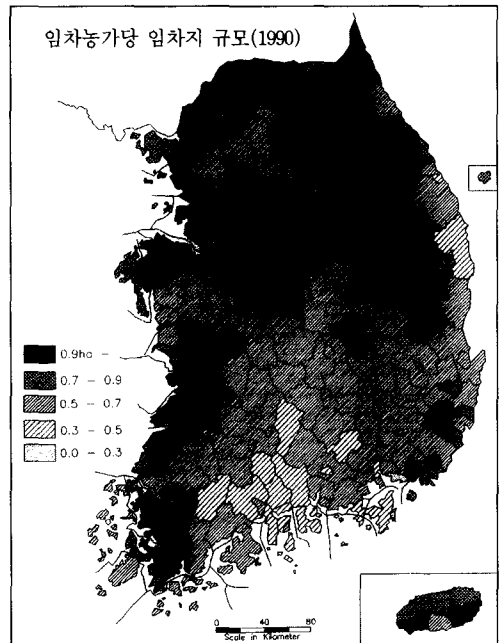


그림 6. 임차농가당 임차지 규모(1990)

지방에서 약간 인정된다. 따라서 1970년처럼 명료한 대각선상의 3 지대구조는 인정할 수 없다.

1990년의 공간구조도 역시 1970년의 경우처럼 농가의 경지소유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산만 - 영일만선 이북의 대규모 임차지역은 20ha 이상을 소유한 대농가의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이 선 이남의 서해안 지방에 분포하는 대규모 임차지역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소규모 임차지역은 대농가율 5% 미만 지역과 일치하는데 서울과 그 주변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중규모 임차지역의 상당부분은 대농가율 5-10% 지역에 속하고 있는 것 등 전체적으로 대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임차지 규모도 커지는 경향으로 보아 1990년 역시 임차지 규모 결정의 주요인은 공급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1970년의 경우 임차지 규모가 영세농가의 분포와 관련되고 있는데 대하여 1990년의 경우는 대농가의 분포와 관련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이것은 1970년의 임차가 주로 영세농가의 생계방편으로 이용된 데 대하여 1990년의 그것은 대농가의 기업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970년의 임차공간이 生計的 賃借空間이라면 1990년의 그것은 企業的 借地空間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수도작지대와 전작지대에 있어서 1970년과 1990년간의 임차지 규모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대체로 전작지대가 수도작지대보다 적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복합경영이 탁월한 전작지대에서는 규모의 외연적 확대에 의하기보다는 고소득 작물의 도입에 의한 자립을 도모하기 때문이며(金正鎬, 1993, p.137), 또 전작이 탁월한 산간지대에서는 기계화가 곤란하여 임차지의 확대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수도작의 경우 도시근교는 겸업형 자작농업이, 중산간지대에는 복합경영이 탁월한 데 대하여 평야지대에서는 대규모 차지경영이 우세한 것이 실증된 바 있다(金正鎬, 1993, p.147).

2) 경영의 賃借依存度

(1) 1970년의 경우

임차농가의 소유 농지규모에 대한 임차지 규모의 비, 즉 借地係數는 농가경영의 임차지 의존도는 물론이고 경영규모의 변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

표 4. 임차지 의존도에 의한 지역유형

| 지역 유형      | 차지계수      |
|------------|-----------|
| 고도(임차)의존지역 | 2.0 -     |
| 중도(임차)의존지역 | 1.5 - 2.0 |
| 저도(임차)의존지역 | 1.0 - 1.5 |
| 자작중심지역     | - 1.0     |

영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1970년의 평균 차지계수는 1.28로서 임차농가의 임차지 규모는 소유농지 규모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림 7에서 고도 (임차)의존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한 12개 도시에 집중되고 그 외에 가평군과 춘성군 및 울릉도가 있다. 도시지역의 임차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농가의 영세성 외에도 비농가 소유의 임대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수유형으로서의 도시형을 제외한 일반 임차공간에서 임차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유형은 중도 임차의존지역으로서 강원도에 집중분포한다. 그 외에 강원도와 연결된 경기도의 연천, 포천군과 경북의 봉화군이 여기에 속하는데 전술한 고도 의존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춘성군은 이 지역의 중심부로 간주할 수 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 (임차)의존지역은 대표적인 산간전작지대로서 1970년의 임차농가율이 전술한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농가당 임차지의 규모도 가장 크고 또 C계열의 임차농가도 탁월하다. 한편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 의존지역 주변에는 저도 의존지역이 분포하고 그 일부는 내륙 중앙부에서 남서부로 신장되고 있다. 이 지역은 표준 의존지역의 성격을 반영하여 북동부의 산간전작지대와 서부 및 남부의 평야 답작지대의 접이 지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임차농가율, 임차지 규모, 경영유형(ACB형) 등에서도 접이적 성격을 띄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남과 전남 및 서부 평야지대의 상당부분은 임차지 규모가 소유지 규모에 미급하는 자작 중심지역이다. 생산성이 높은 답작지대이므로 농가 집중에 따른 임대지의 공급제한이 임차지 의존도를 낮게 하고 있다.

임차지 의존도로 본 1970년의 한국 임차공간의 구조 역시 한국의 전통 농업공간구조를 반영하여 북동 - 남서 방향의 대각적 대상구조로 모식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임차농가율, 耕種組織 (전답구조), 임차지 규모, 농가형태로 본 지역유형 등의 공간구조와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이들 제요소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임차의존도는 대체로 임차 농가율이 높을수록, 산간 전작지대의 성격이 탁월할수록, 임차지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유형이 ABC → ACB → CAB형으로 이행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제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지형적 분포를 비롯한 자연공간의 구조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1970년의 임차의존공간은 한국의 전통 농업공간이 지니는 “자연적 공간통일에 의한 自然的 適格地域”(數内芳彦, p.230)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또 그 만큼 공간형성 요인도 단순하다.

(2) 1990년의 경우

1990년의 평균 차지계수는 1.45로서 1970년 보다 임차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지의 실제가격이 수익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농지 매입보다 농지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임차에 의한 규모확대는 산간 전작지대보다 답작지대에서 현저하다(김정호

외, 1993, p.137).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변동요인만으로는 각 지역의 공간변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림 8에서 차지계수의 공간변이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서울을 비롯한 40개 주요 도시들의 임차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주목된다. 특히 서울과 그 주변도시들은 최고도의 임차의존도를 나타내는 것 등 1970년에 비하여 도시근교 지역의 임차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교지역의 임차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비농가 임대지가 많은 것 외에 수익지가보다 실제지가 높은 이 지역에서는 규모의 확대를 임차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과 그 주변의 고도 의존지역 외부에는 중도 의존지역이 분포한다. 단 그 분포형태는 환상 분포가 아니고 북, 동, 남의 3 방향으로 파출된 대상분포가 특징이고 동부 대상지역은 춘천을 거쳐 동해안의 속초까지 연장되어 있다. 그외에 고도의 의존지역인 부산, 대전, 강릉, 동해시의 주변에도 소규모의 중도 의존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또 중도 의존지역의 주변에는, 낙동강 유역을 제외하면, 저도 의존지역이 광범하게 분포하는데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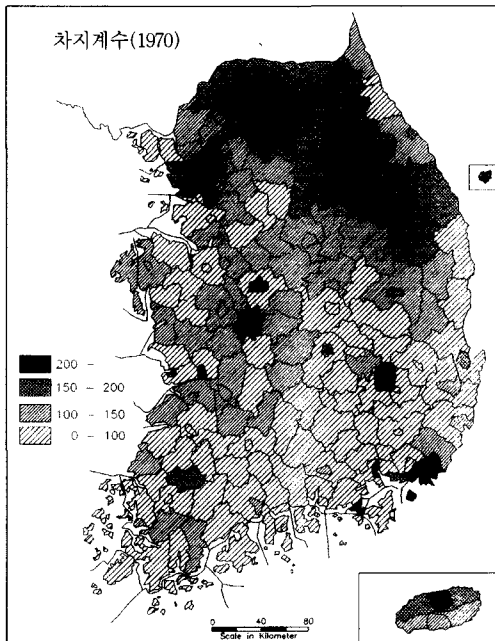


그림 7. 차지계수(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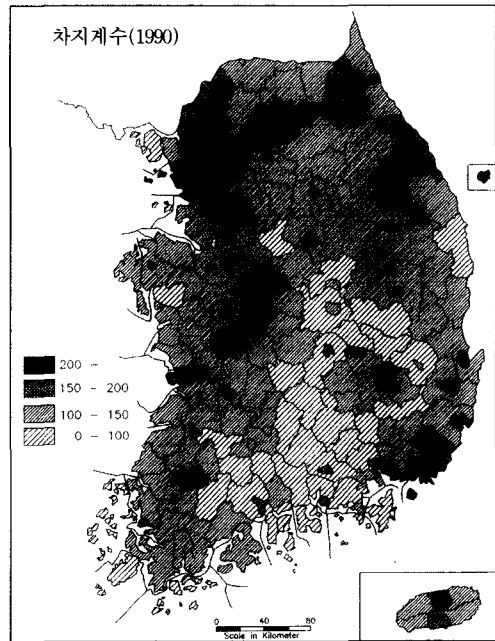


그림 8. 차지계수(1990)

유면적상으로는 임차의존공간의 대표 유형이 된다.

끝으로 낙동강 유역과 전남의 동부는 임차지보다 소유지가 많은 자작중심지역이 분포하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높은 농가율과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은 공간배열을 전국적 관점에서 모식화하면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장 진척된 서울을 핵심으로 남동 방향으로 이행하면서 임차의존도가 점감하는 경향을 시현함으로써 서울 중심의 圈構造를 상징할 수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권역 형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그 주변지역 이외의 제도시들이 형성한 고도 임차의존지역과 그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전국적 임차의존권 내부에 형성된 소규모의 권구조라 할 수 있다.

1970년의 대상적 공간구조가 주로 자연적 공간질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1990년의 圈域적 공간구조는 경제적 공간질서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공간변이는 전국적으로는 산업 핵심지역인 서울에서의 거리, 지방적으로는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가 증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 경향을 취하고 있다(今村奈良臣, 1976, p.104). 이것은 양국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표 5. 경영형태로 본 임차지역유형

| 지역 유형       | 전지계수      |
|-------------|-----------|
| 고도 전작형 임차지역 | 2.0 -     |
| 저도 전작형 임차지역 | 1.0 - 2.0 |
| 저도 답작형 임차지역 | 0.5 - 1.0 |
| 고도 답작형 임차지역 | 0.0 - 0.5 |

중심·주변간의 공간조직 양상의 차이 외에도 자연공간의 차이에도 관련된다.

### 3) 임차농의 경영 형태

#### (1) 1970년의 경우

임차지 중에서 논과 밭의 구성관계는 각 지역의 임차농의 경영 형태를 파악하는 데 기본적인 지표의 하나이다. 임차한 논의 면적에 대한 임차한 밭의 면적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임차)田地係數는 1970년에 평균 0.97로서 논과 밭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균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국의 논이 밭 면적의 1.25배인 사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밭의 임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가 농가수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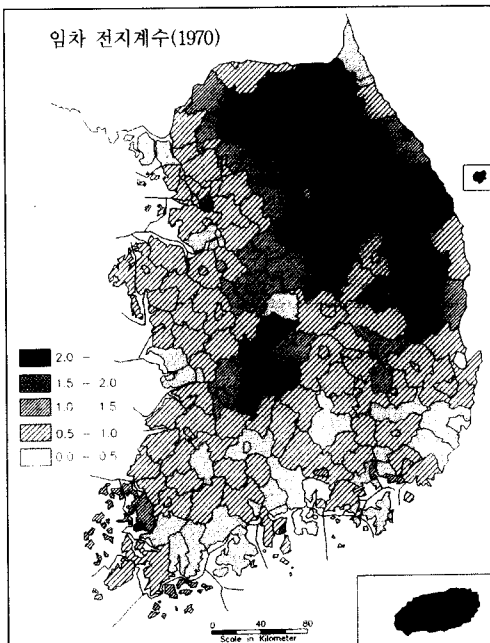


그림 9. 임차 전지계수(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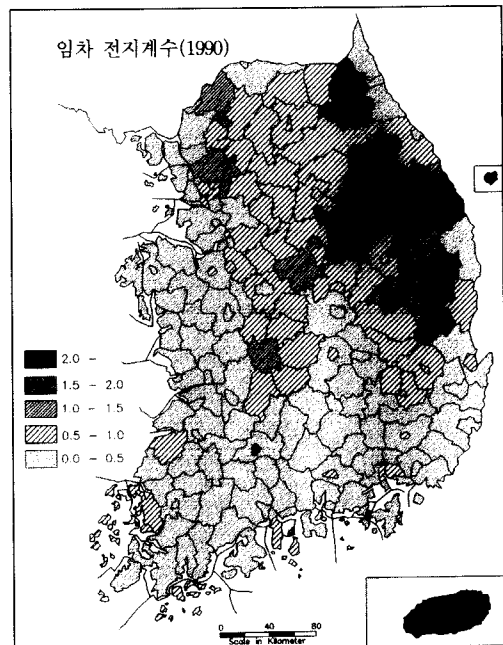


그림 10. 임차 전지계수(1990)

수준에 달한 시기였던 만큼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논의 임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9에서와 같이 임차 전답의 구성관계는 현저한 지역차를 시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전술한 임차농가율, 임차지 규모, 임차의존도의 변동계수가 0.27 - 0.28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하여 전지계수의 그것은 0.58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지계수는 임차농업공간의 지역성을 가장 명백히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림 9에서 유형지역의 분포를 모식적으로 표현하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고도 전작형 임차지역이 분포하고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감에 따라 저도 전작형 임차지역, 저도 답작형 임차지역이 차례로 위치하다가 남해안 지방에 고도 답작형 임차지역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 공간구조는 북동 - 남서방향의 대상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는 1970년의 농업공간이 기본적으로 논·밭의 분포비율, 나아가서 지형분포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생태공간이기 때문이다.

(2) 1990년의 경우

1990년의 평균 전지계수는 0.63으로서 1970년의 0.97에 비하여 대폭 낮아졌다. 이것은 임차지의 구성에서 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차지의 논 선호 추세를 읽을 수 있다. 또 전지계수의 공간변이 역시 1970년보다 더욱 현저해져서 농업공간의 경우 좀처럼 유례가 드물게 변동계수가 0.83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임차농 경영형태의 구조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임대지 구성관계의 변화 즉 농지유통화의 조건 변화와 임차지 경영목적의 변화에 기인한다. 우선 공급측면에서는 이농이나 탈농의 촉진 및 농가 노령화에 의한 논의 임대가 증가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 농가 식량확보나 수익성에 있어서 보다 안정되고 유리한 논의 임차 선호 때문이다. 다만 서울과 거기에 인접하는 일부 도시와 남원, 통영시의 경우 일반적인 답지 선호 추세와는 달리 전지 선호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 역시 밭 작물중심의 상업적 근교농업과 관련지워 볼 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0에서도 그림 9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도

전작형 임차지역은 강원도 남부와 그에 접속하는 충북의 일부지역에 형성되어있으나 그 지역 규모가 1970년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고 저도 전작형 임차지역 역시 그 형성이 미미하다.

반면 1970년 전작형임차가 탁월하였던 지역이 대부분 (저도) 답작형 임차지역으로 바뀌었고 1970년의 저도 답작형 임차지역은 1990년에 고도 답작형 임차지역으로 답작이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1990년의 공간구조 형태는 1970년의 대상구조와는 달리 대상구조와 권구조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권구조라고 하여도 핵심지역이 산업의 중심이나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지역이나 경제지역으로서의 圈域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수익성을 중시하는 임차농이 임차지를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답의 분포조건 즉 자연조건의 제약을 받는 데서 연유하는 결과일 뿐이다. 다만 두 시기에 있어서 전답의 분포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양시기에 있어서 임차농 경영형태의 현저한 공간변이는 생계적 임차에서 기업적 임차로의 영농목적 전환과 농지유통화의 차이에서 설명될 수 있다.

4) 非農家 賃借度

임차지의 차용형태는 농가차용과 비농가차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농가 차용은 주로 在村農家 소유의 농지차용을, 비농가 차용은 주로 부재지주의 농지임차를 의미한다. 임차지의 농가차용에 대한 비농가 차용의 비는 임차농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농업 내적 요소에 의한 접근과는 달리 농업 외적 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농가차용 면적에 대한 비농가차용 면적의 상대적 크기 즉 非農家賃借係數의 공간변이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1990년에 한하여 표시하면 그림 11과

표 6. 비농가 임차도에 의한 임차지역유형

| 지역 유형       | 비농가 임차계수  |
|-------------|-----------|
| 고도 비농가 임차지역 | 3.0 -     |
| 중도 비농가 임차지역 | 2.0 - 3.0 |
| 저도 비농가 임차지역 | 1.0 - 2.0 |
| 농가 중심 임차지역  | - 1.0     |

같다.

1990년의 평균 비농가 임차계수는 2.13으로서 농가차용보다 비농가 차용이 2배를 넘고 있다. 또 그만큼 한국의 임차공간은 비농가 임차공간화의 성격이 짙고 결과적으로 농외 요인의 영향도 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임차지의 상당 부분이 도시로 이주한 (과거)농민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농지라는 점과 이들이 보유한 농지의 규모가 영세하고 이들의 임대 목적이 순수 영리적이 아니라란 점에서 한국의 임차공간을 자본주의적 임차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비농가 임차계수가 3.0이상인 고도 비농가 임차지역은 전 단위지역의 약 20%를 점하나 그림 11에서와 같이 그 분포가 분산적이어서 대규모의 지역형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그 주변의 위성도시 지역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고도 비농가 임차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들 도시지역은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비농가의 농지 보유도가 매우 높으며 주변의 중도 비농가 임차지역과 결합하여 도시형 비농가 임차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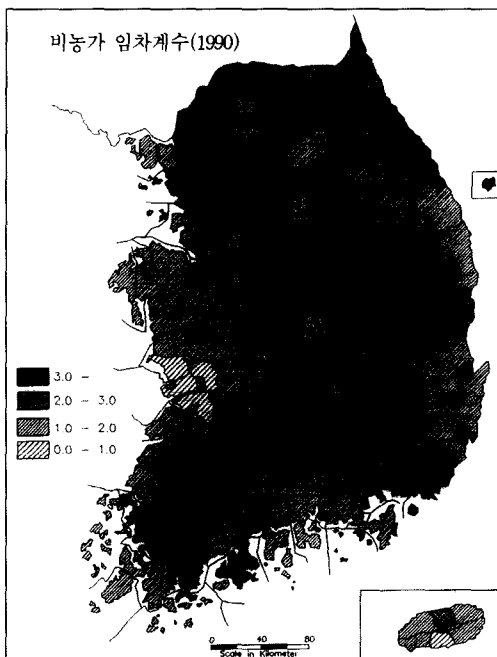


그림 11. 비농가 임차계수(1990)

한편 중도 비농가 임차지역은 상당한 공간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된다.

도시형은 (가)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나)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양산지역, (다) 대구와 그 근교, (라) 광주 일원, (마) 대전·청주지역, (바) 목포 중심의 무안·영암지역 등이 그것인데 앞에 열거한 두 지역의 지역 형성이 특히 명료하다.

이에 대하여 농촌형은 (가) 소백산맥의 북반부와 (나) 소백산맥의 남반부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그 외에 휴전선 부근과 강원도의 동해안 지역들이 있다. 농촌형 지역은 대도시나 산업화의 중심에서 격절된 산간지대로서 이농이 현저하였던 지역이므로 이농민의 보유 농지가 많다.

끝으로 비록 점유공간의 규모는 작으나 대표적水稻 單作지역인 금강 하류지역은 비농가 임차계수가 1.0 이하로서 유일하게 농가중심 임차지역을 이룬다.

## 5. 實借農業의 空間分化和 農家階層構造의 관계

### 1) 자본주의적 空間分화 질서

한국의 임차공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1970년 이전의 생계적 小作空間에서 小農的 借地空間으로 성격 전환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농의 공간구조도 모자이크적 帶狀구조에서 통일 공간체계로서의 圈구조로 개편중에 있다. 전통적 小作空間이 전술한 것 처럼 生態空間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공간구조 형성도 기본적으로 자연적 공간분화 질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면 최근의 借地空間은 경제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만큼 그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질서에 지배될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형성과 공간분화를 질서지우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맑시즘적 兩極分화 논리와 신고전 경제학의 산업화론이 그것이다. 정기환에 의한 임차농의 농지 임차목적 분

석에서 이들 두 논리가 한국의 임차농연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이 밝혀진 바 있으나(정기환, 1993, p87), 이들을 공간논리로 적용한 연구는 없다. 원래 이 두 설명논리는 공간분화에 직접 적용된 논리는 아니나, 하나의 공간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지역들은 비록 동일한 시점에 존재하면서도 각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도에 따라 지역의 속성에 차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공간분화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맑시즘의 양극분화<sup>6)</sup> 개념과 관련된 지역 속성 중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농가의 계층구조로서 농가 하부계층과 상부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일수록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화론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표는 도시화로서 도시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산업화나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양극분화 문제에 관심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농가 계층을 일반적 구분과는 달리 하부계층, 소·중농층, 대농층의 3계층으로 대별한 후 소농사회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 하강분해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하부계층은 다시 빈농층과 영세농층으로 세분하였는데 여기에서 빈농층은 경지 없는 농가를 의미한다.<sup>7)</sup> 또 농가 계층구분의 기준은 소유경지면적으로 하되 0.5ha이하를 영세농층, 0.5-2.0ha를 소·중농층, 2.0ha 이상을 대농층으로 규정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指標는 자본주의적 공간구조로서의 圈구조를 시현하는 지표들 즉, 임차 농가율, 농가형태 구성으로 본 임차농업지역의

유형, 경영의 임차의존도(차지계수)의 3가지로 한정하였다.

## 2) 農家階層 구조분석

### (1) 임차농가율로 본 空間分化 질서

맑시즘 논리에 의하면 임차농화는 농업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농가의 하강분해 결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임차농화가 진척된 고도 임차농업지역이 자본주의화가 가장 진척된 지역으로, 고도 자작농업지역은 그 반대의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간주된다.

표 7에서 1970년의 지역별 농가 계층구조는 임차 농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빈농층이나 영세농층의 비중, 즉 하부계층의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맑시즘의 하강분해 원리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농층과 소·중농층은 임차농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상향분해의 결과가 아니라 1970년의 경우 임차농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산간 전작지대의 성격이 강하므로 영농의 적정규모가 커야하기 때문이다.

1970년은 中農 標準化期(1967-1983)에 해당되므로(金聖昊 외, 1989, p1093) 전국적으로도 양극 분화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이 공간적으로도 양극 분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1970년의 지역별 농가 계층구조는 도시율과 관련 지워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즉 도시율이 클수록 빈농이나 영세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대농은 감소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한편 1990년의 경우 빈농층은 하강분해적 공간

표 7. 임차농업지역별 농가 계층구조

단위: %

| 지역유형      | 1970 |      |      |      | 1990 |      |      |      | 도시율(%) |      |
|-----------|------|------|------|------|------|------|------|------|--------|------|
|           | A    | B    | C    | D    | A    | B    | C    | D    | 1970   | 1990 |
| 고도 임차농업지역 | .    | .    | .    | .    | 2.5  | 44.9 | 45.8 | 6.8  | .      | 100  |
| 저도 임차농업지역 | 2.5  | 19.8 | 66.2 | 11.5 | 2.1  | 23.6 | 64.1 | 10.2 | 6      | 47   |
| 저도 자작농업지역 | 3.2  | 24.2 | 65.5 | 7.1  | 2.0  | 28.1 | 60.2 | 9.7  | 9      | 29   |
| 고도 자작농업지역 | 4.0  | 35.8 | 54.7 | 5.5  | 1.1  | 35.7 | 56.8 | 6.4  | 23     | 30   |

(주) A: 빈농층, B: 영세농층, C: 소·중농층, D: 대농층.

도시율: 총단위지역 수에서 점하는 도시지역의 비율



분화 질서를 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농층은, 점유공간의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영 규모의 확대가 곤란한 도시근교형 고도 임차지역을 특수형으로 간주하여 제외할 경우, 상향분해적 공간분화 질서를 인정할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 1990년의 양극 분화는, 시간적 차원에서, 1983년 이후를 양극분화기로 규정하고 있는 종래의 주장(金聖昊, 1989, p.1093)과 일치한다. 그러나 소·중농층은 일정한 공간분화 질서가 없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이들 두 계층이 소농적 성격을 전형적으로 갖춘 계층이어서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대한 대응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1990년의 지역별 농가계층구조를 1970년의 그것과 대비하면 하부계층과 대농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지역이 감소한 지역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즉 자본주의화가 보다 진척된 1990년이 1970년에 비하여 임차공간의 양극분화가 진척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990년은 1970년에 비하여 ① 빈농층의 비중이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사실, (물론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빈농층의 우선적 이농이나 타농의 결과이다.) ② 대농층의 증가가 이농과 기계화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에 의한 결과이지 고용 노동력에 의존하는 순수 기업적 영농이 아닌란 점, ③ 소·중농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90년에도 맑시즘적 공간분화 질서의 지배는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그 공간 설명도가 약간 높아졌을 뿐이다.

한국 임차공간의 공간분화 설명에 있어서의 맑시즘 논리의 적합성 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농가계층구조의 공간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임차농의 증가를 의미하는 하강분해가 궁핍화의 결과라

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정기환은 사례조사에서 “농가가 자작농지를 상실함에 따라 그 보충수단으로 농지를 임차한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뿐더러 농가소득 분포에서 자작작농과 순임차농이 자작농 보다 저소득 농가율은 낮고 고소득 농가율은 높아 결과적으로 임차농의 증가가 궁핍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정기환, 1993, p.87)하고 있는 것은 맑시즘 논리의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오히려 표 7에서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빈농층과 대농층(단 고도 임차농업지역은 특수형으로 간주하여 제외)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화 논리가 공간분해해명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산업화 논리는, 1990년의 지역별 빈농층 비중과 저도 임차농업지역의 대농층 비중이 1970년의 그것보다 적은 이유를, 산업화에 따른 빈농층의 우선적 이·탈농과 산간 전작지대의 임차농가율 감소 추세에 의하여 각기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농가형태로 본 임차지역유형과 공간분화 질서

자작작 농가, 차작작 농가, 순임차 농가의 구성 관계로 본 임차지역의 유형은 표 8에서와 같이 6종에 이르는데, 자본주의화에 따른 (공간적) 하강분해 즉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가설)가 ABC - ACB - BAC - BCA - CAB - CBA의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또 실제로 이 공간분화 과정이 본 연구의 경우 가설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可逆현상이 인정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1990년의 경우 이 분화과정이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주목

표 8. 지역유형별 농가 계층구조

| 지역유형 | 1970 |      |      |     | 1990 |      |      |      | 도시율  |      |
|------|------|------|------|-----|------|------|------|------|------|------|
|      | A    | B    | C    | D   | A    | B    | C    | D    | 1970 | 1990 |
| CBA  | 7.1  | 35.8 | 52.1 | 5.0 | 3.5  | 37.6 | 51.2 | 7.7  | 50   | 95   |
| CAB  | 5.7  | 35.1 | 52.7 | 6.5 | 3.2  | 40.4 | 49.8 | 6.6  | 58   | 75   |
| BCA  | .    | .    | .    | .   | 1.8  | 44.7 | 52.5 | 1.0  | .    | 50   |
| BAC  | .    | .    | .    | .   | 1.4  | 34.4 | 52.6 | 11.6 | .    | 40   |
| ACB  | 3.8  | 28.6 | 60.1 | 7.5 | 1.6  | 30.0 | 57.2 | 11.2 | 3    | 21   |
| ABC  | 2.1  | 33.9 | 59.6 | 4.4 | 1.3  | 26.9 | 62.5 | 9.3  | 2    | 10   |

된다. 즉 도시화가 진척될수록 자본주의적 공간분화도도 높은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농가형태구성으로 본 임차농의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과정은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산업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공간적 차원에서 1970년의 지역유형별 농가 계층구조를 보면 빈농층을 제외하면 하강분해적 공간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본주의화가 가장 미숙한 ABC지역을 제외하면 영세농층은 하강분해 경향을, 소·중농층과 대농층은 그 반대 경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하부계층에서는 하강분해적 공간질서를 대체로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 계층의 경향으로 보아 맑시즘적 공간질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도시화나 산업화와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의 경우는 6종의 유형이 망라되어 공간분화가 더욱 진척됨으로써 공간질서를 1970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느 계층에서나 정연한 공간질서를 시현하는 경우가 없다. 다만 각 계층별로 1개 지역을 예외로 할 경우 빈농층의 하강분해와 소·중농층의 반하강분해 경향이 인정된다. 또 1990년에 새로이 형성된 B계열의 두 유형은 해당지역의 공간 점유면적이 근소하기 때문에 그 일반 경향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본 고찰에서 이들을 제외하면 빈농층과 영세농층을 포함하는 하부계층의 하강분해 즉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질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농층의 경우 B계열을 제외하여도 공간분화의 질서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은 도시화와의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다.

시간적 차원에서 1990년의 지역별 구조를 1970년의 그것과 대비하면, 대비가 불가능한 B계열을 제외할 때, 하부계층과 중·소농층은 감소추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농층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대농층의 상향적 공간분화 추세가 인정되나, 하부계층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맑시즘적 공간분화 질서가 아니라 산업화된 질서에 의한 공간분화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1970년과 1990년 다같이 농가 계층구조로 볼 때 공간분화에 뚜렷한 질서가 없으며 따라서 맑시즘이나 산업화의 두 논리의 설명도가 높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다만 두 시기를 대비할 때 후자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더 설명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는 경영형태로 본 임차 공간은 아직도 자본주의적 공간질서를 따를 만큼 충분히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의 자본주의적 두 논리의 설명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농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3) 경영의 임차의존도로 본 공간분화 질서

농업공간의 자본주의적 발전도와 임차의존도 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 그것은 임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공간의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적 차원에서 1970년의 지역별 농가 계층구조를 보면 빈농층에서 명백한 하강분해를 인정할 수 있는데 대하여 영세농층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다. 만일 도시근교형에 속하는 고도 의존지역을 특수형으로 간주하여 제외할 경우 영세농층은 오히려 하강분해와는 반대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하부계층의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해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대농층의 경우 고도 의존지역을 제외하면 상향분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1970년의 경우 빈농층과 대농층에서 양극분해 현상이 대체로 인정되나, 전술한 바와 같이

표 9. 지역별 농가계층구조

| 지역유형    | 1970 |      |      |     | 1990 |      |      |      | 도시율(%) |      |
|---------|------|------|------|-----|------|------|------|------|--------|------|
|         | A    | B    | C    | D   | A    | B    | C    | D    | 1970   | 1990 |
| 고도 의존지역 | 6.6  | 40.5 | 48.6 | 4.3 | 3.5  | 38.1 | 51.3 | 7.1  | 80     | 93   |
| 중도 의존지역 | 5.0  | 28.8 | 58.0 | 8.2 | 2.5  | 35.1 | 53.6 | 8.8  | 37     | 62   |
| 저도 의존지역 | 4.3  | 29.8 | 59.1 | 6.8 | 1.3  | 25.4 | 62.1 | 11.2 | 15     | 9    |
| 자작 중심지역 | 2.7  | 33.3 | 58.5 | 5.5 | 0.8  | 30.8 | 63.5 | 4.9  | 3      | 3    |

영세농층의 反하강분해 경향 때문에 畞시증적 공간분화로 규정할 수 없고 오히려 도시화 즉 산업화와 관련된 공간질서에 가깝다.

한편 1990년의 경우 빈농층의 하강분해가 뚜렷하고 영세농층 역시 자작중심 지역을 제외하면 하강분해를 시현하고 있는 점에서 하부계층의 하강분해 경향이 인정된다. 또 소·중농층은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시현하고 있으나 빈농층, 영세농층, 중·소농층이 모두 뚜렷한 공간분화 질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그 만큼 1990년의 공간분화가 1970년에 비하여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에 따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농층의 경우 임대지 공급제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간질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임차의 준도로 본 임차공간이 완전한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에 의하여 조직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구나 畞시증 질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적 차원에서 지역별 계층구조의 변화를 보면 1990년은 1970년에 비하여 지역마다 빈농의 상당한 감소추세가 있고 영세농층 역시, 중도 의존지역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산업화의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소·중농층과 대농층은 증가추세를 취하는데 이것 역시 이농과 기계화 즉 산업화의 결과이다.

#### (4) 요약

이상, 임차 농가율, 농가형태로 본 임차지역 유형, 임차 의존도의 3측면에서 임차농의 공간분화 질서를 구명하였으나 3측면에서 모두 하강적 공간분화 질서를 시현하고 있는 계층은 1990년의 빈농층이 유일하고 1970년의 빈농층이 여기에 준한다. 그러나 하부계층중에서 중심적 계층을 이루는 영세농층의 경우, 1990년이 1970년의 경우보다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두 시기 모두 하강분해의 경향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 특색이다. 농지법과 임대지 공급 등의 제약으로 상향분해가 자유롭지 못한 소농사회에서 양극 분해중 특히 관심이 큰 (공간적)하강분해는 1990년에 와서 빈농층, 즉 下極계층에서 겨우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조차도 1970년보다 그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해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산업화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대농층의 상향분해는 대상 시기와 지표에 따라 전면 인정, 부분 인정, 부정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공간분화 질서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1990년이 1970년에 비하여 상향분해의 추세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각 지역이 원칙적으로 농업노동자의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채 공간 차별적인 규모 확대를 이룬 점에서 畞시증적 논리보다 산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요는 농가 계층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본 임차공간은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에 의해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양극화 현상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질서에 의한 임차공간의 분화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공간질서를 규정하는 논리의 적용도와 설명도 역시 제한적이다. 특히 畞시증 논리가 그러한데, 대농층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갖추지 못한 소농적 차지공간에서는, 소작공간과는 달리, 처음부터 畞시증적 접근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산업화 논리가 공간분화 질서해명의 절대적 논리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빈농층과 일부 대농층의 공간분화를 질서 지우는데 비교적 효과적일 뿐이다. 오히려 각 지역 계층구조의 압도적 비중을 점하는 영세농층 및 소·중농층과 일부 대농층의 공간분화 질서는 비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소농이론이 그 예인데, 그것은 한국의 임차공간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자본주의화에 대한 대응이 민첩하지 않은 소농에 의하여 주도되는 차지공간이기 때문이다.

## 6. 결 론

1970년 이후 한국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임차농은 시기적·장소적으로 상당한 變異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空間變異와 공간구조에는 특정의 형성요인과 질서가 존재함이 밝혀짐으로서 임차농 이해를 위해서는 임차농의 空間性 파악이 긴요한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임차농의 공간변이와 그 성격 규명은 우선 공간 변이를 일으키는 기본틀로서의 공간구조의 특성 파악을 통해서 가능하다. 임차농의 공간구조는 1970년의 (對角的)帶狀구조에서 1990년에는 圈구조로 개편되어 가는 경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전자가 비교적 단순명료한 분포형태를 취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아직 그 구조가 명료하지 않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임차공간의 자본주의화가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1970년의 경우 주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대하여 1990년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국지적 요인이 중요하다. 전국적 요인이 권구조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인데 대하여 국지적 요인은 권구조 형성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런 점에서 1970년의 전통 임차공간은 生態空間으로, 1990년의 그것은 경제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전자가 지역간의 관련성이 적은 모자이크 공간인데 대하여 후자는 수도권 근교형 임차농업지역을 핵으로 통일공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임차공간의 형태적 특성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농업공간 본질의 표출이다. 한국의 임차공간은 1970년의 봉건적 小作空間에서 그후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小農의 借地空間으로 전환중에 있다. 이 소작적 차지공간은 소작공간과 資本制的 借地空間의 중간 형태로서 한국의 임차공간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이 된다.

한편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임차농의 대응은 지역마다 다르고 이러한 공간변이는 공간구조형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공간분화를 촉진시키는데, 농가형태 구성으로 본 한국의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과정은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 농가 계층구조로 볼 때 한국 임차농업의 자본주의적 공간분화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논리 중 맑시즘적 논리보다는 산업화론 즉 신고전 경제학적 논리가 더 설명도가 높은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소농이 타월하고 자본주의화가 미숙한 임차공간에서 산업화 논리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한국 임차농의 공간분화 질서를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단일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 그것은 한국의 임차공간이, 자본주의화가 미숙한 데서 오는, 과도기적 복합성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임차공간 이해에는 산업화 논리 외에 賃借小農의 空間反應에 관한 논리가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농이론의 의의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註

- 1) 임차농의 자료로 흔히 이용되는 농업센서스 결과와 농가경제 조사자료 간에는 임차농가수와 임차지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다. 본 자료는 농업센서스 자료이다.
- 2) 현재까지 임차농에 관한 체계적 공간 연구는 禹鎭鉉의 韓國 賃借農地의 分布變化와 地域特性(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이 유일하다.
- 3) 임차농은 임차농업, 임차농가, 임차농민 등의 의미로 지칭되나 본 연구에서는 임차농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 4) 1960년의 평균 土地生産力 係數는 미작지대: 1.04, 혼작지대: 0.97, 전작지대: 0.94 이다(徐贊基, 1975b, p221). 또 1969년도 시도별 농가당 평균 농업 생산액 역시 강원도가 47만원(1975년 불변가격)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이 그 예이다(자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1980, 地域生産 豫測模型開發과 適用에 關한 研究, 부표, 1-1에서 산출).
- 5) 이 경우 自借作農은 임차지가 농가 경영면적의 반 이하, 借自作農은 반 이상, 純賃借農은 100%를 점하는 농가로 정의한다. 단, 농가 소유농지는 타농가에 임대하지 않고 전부 自耕한다고 가정한다. 또 농업 노동자는 임차농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6) 본 연구에서는 兩極分化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간적 차원으로서 1970년과 1990년간의 비교에 이용한 것 외에 동일 시점에 있는 각 지역간의 비교에 이용된 공간적 차원의 개념이다. 이것은 동일 시점이라도 지역에 따라 자본주의의 발전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지역일수록 하강분해와 상향분해가 더 촉진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공간적 하강분해, 후자를 공간적 상향분해로 호칭하기로 한다. 또 맑시즘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하강분해를 본 연구에서 프롤레타리아화적 공간분화로 표현한다.

7) 본 연구에서의 「경지 없는 농가」는 임차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노동력의 판매에 의하여 잉여를 창출할 뿐이고 생산과정의 지배력이 없는 맑시즘의 프롤레타리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경지 없는 농가라 해서 모두가 빈농층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빈농층 규정은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대농의 경우도 자본가 계급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력에 의존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농은 노동의 주된 부분을 지주가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수단의 소유주이긴 하나 타인 노동력의 지배가 없는 소위 뼈띠 브르조아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의 대농은 반드시 자본가 계급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농가 계층구조 분석에서 빈농층과 대농층의 개념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농업생산력이나 농가소득의 비교 분석이 없는 본 연구의 맑시즘적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참고문헌

- 강용창, 1991, “농지 임대차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 가능성 분석”, 농촌경제, 14(3), 61-73.
- 강용창, 박현태, 1995, “농지 임대차 증대에 관한 거리비용적 접근”, 농촌경제, 18(1), 71-77.
- 金聖昊, 金沅根, 全敬植, 許英九, 金泰坤, 1984, 農地制度 및 農地保全에 關한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서울.
- 金聖昊, 金正夫, 金正鎬, 1986, 農地貸借定立을 위한 調査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연구보고, 135.
- 金聖昊, 全敬植, 蔣尙煥, 朴錫斗, 1989, 農地改革史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서울.
- 金榮鎭 외, 1982, 農地貸借에 關한 調査研究: 賃借農實態를 중심으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49.
- 김정부, 백선기, 김영춘, 1990, 농지의 이용 및 유통화 전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1.
- 金正鎬, 1987, “農地貸借論爭: 그 實態와 問題點”, 農村經濟, 10(4), 109-123.
- 金正鎬, 1992, “최근의 農地流動化의 동향과 성격”, 농촌경제, 15(1), 21-41.
-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8.
- 김정호, 정기환, 박문호, 1993,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영체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8.
- 박현채, 정영일, 황한식, 이영기, 김완, 이우재, 김낙중, 1984, 한국 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서울.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회, 1988, 농민층 분해와 농민운동, 미래사, 서울.
- 徐贊基, 1975a,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關한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徐贊基, 1975b, “韓國農業에 있어서 土地生産力の 分布와 그 要因”, 경북대학교 논문집, 20, 213-226.
- 徐贊基, 1978, 韓國의 農業地帶區分, 1977年度 文教部 研究報告.
- 徐贊基, 1993, 韓國農業의 地理學的 研究, 成文社, 大邱.
- 吳浩成, 1981, 經濟發展과 農地制度,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연구총서, 5.
- 禹鐘鉉, 1997, 韓國 賃借農地의 分布變化와 地域特性,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李佑宰, 1974, “小作慣行에 關한 調査研究 - 日帝小作慣行과 比較하여”, 農業政策 研究, 제 1권, 43-55.
- 李貞煥, 金殷淳, 1984, 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연구보고, 86.
- 이정환, 조덕래, 조재환, 1990, 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지원시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16.
- 이정환, 1994,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곱가지 쟁점”, 농촌경제, 17(3), 57-69.
- 이정환, 조재환, 1995, 농지가격·임대차료 결정요인과 상호연관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2.
- 이호철, 1991, 산업화와 농업경제, 한길사, 서울.
-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변천에 관한 연구: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6.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農地賃貸借現況과 制度  
定立의 方向, 政策協議시리즈, 12.
-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편, 1988, 한국농업·농민문  
제 I, 연구사, 서울.
- 한국 농어촌사회연구소 편, 1991, 한국농업의 위기  
와 재편방향, 창작과 비평사, 서울.
- 倉持和雄, 1983, “農地改革 이후의 韓國의 農地賃貸  
借 問題”, 農村經濟, 6(1), 109-122.
- 今村奈良臣, 1976, “農地賃貸借의 構造變化”, 農業經  
濟研究, 48(3), 101-110.
- 伊藤喜雄, 1979, 現代賃借制 農業の形成, 御茶の水  
書房, 東京.
- 車洪均, 1987, “韓國水稻單作地帶に おける 農地賃  
貸借의 現況 : 慶南金海郡駕洛面의 事例調  
査”, 農業經營研究, 25(1), 9-17.
- Byres, T.J.(ed.), 1983, *Sharecropping and  
Sharecroppers*, Frank Cass, London.
- Curry-Roper, J.M. and Bowels, J., 1991, “Local Factors  
in Changing Land-Tenure Patterns”,  
*Geographical Review*, 81, 443-456.
- Harrison, M., 1979, “Chayanov and Marxists”, *Journal  
of Peasant Studies*, 7(1), 86-100.
- Moonney, P.H., 1983, “Toward a class analysis of  
Midwestern agriculture”, *Rural Sociology*, 48  
(4), 563-584.
- Pears, R., 1983, “Sharecropping : Toward a Marxist  
View”, *Journal of Peasant Studies*, 10(2,3), 42-  
70.
- Perter, R., 1986, “A New Model for Sharecropping and  
Peasant Holdings”, *Journal of Peasant Studies*,  
13, 27-49.
- Shanin, T.(ed.), 1973, *Peasant and Peasant Society*,  
Penguin Books Inc, Batimore.